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구술인물사 / 최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 민중불교운동에 불을 지피다

박정희 타도에 허탈감 밀려와

불교운동사에 있어서 최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그는 불교인으로서 70년대 중반 그리고 80년대의 격동기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 그의 활동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 첫째는 1975년 대불련 기획국장으로서 사전 구급당했던 전재성 회장을 대신해 대불련을 이끌었고, 이듬해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 때 '민중불교운동'의 이론 정립과 실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군 제대 후 1981년 다시 한 번 대불련을 주도하려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여익구 선생을 대불련 사무총장으로 영입시키면서 8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세 번째 사원화운동이다. 종로 묘각사를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한 이른바 야학운동이다.

'엄혹'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듯이 70년대 중반은 유신 쿠데타에 이어 긴급조치 남발과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인도 차이나반도의 공산화, 판문점도끼만행 사건 등 국내외적으로는 물론 사상적 대립으로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던 시절이었다. 이 시기 민중불교운동을 주도했던 최연은

1976년말 대불련 회장의 임기가 다하자 허탈에 빠졌다.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련이 다가왔다.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 현실적인 현실이고도 있지마는 또 1975년부터 해운 엄혹한 시기에 있어서 (당국이) 더 옥죄어 오고 있는 데서 더 이상 학교 다닌다는 것은 뭐 죽음을 각오해야 될,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절망 속에서 군대를 간 거죠 사실은. 절망 속에서."

1977년 입대해 그는 군 생활을 시작했다. 학생 시절 최연은 활발한 학생운동을 펼쳤지만 군에서는 조용하게 보낸다. 최연이 학생시절 주동했던 과거를 군 지휘관들이 알고 있었던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연히 만난 선배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제대하는 날까지 눈 감고 귀 막고 병어리로 3년을 채우라는 것이었다. 1979년 11월초 제대와 함께 그는 다시 격정의 한국역사 한 가운데 서게 된다. 최연을 맞이한 것은 10.26 박정희 시해 사건과 이후 이어지는 격랑의 한국 사회였다.

"뭔가 했더니 아고 박정희 죽었다는 거



종로구 송인동의 묘각사. 이 곳에서 어려서부터 즉 불교야학운동이 펼쳐졌다.

야. 아- 얼마나 그리고 나서 (제대를 위해) 5일 동안 기다리는데 시간도 길었지만은 자괴감이 아주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박정희 타도에 얼마나 많은 젊음을 걸었냐요. 그 박정희 군사독재 타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또 군대 와서 막 개갈이 살다가 이제 내일 모레 나가는데 어? 그

것도 지 소위 말해서 지 부하한테 죽었다 하니 얼마나 허탈합니까? 이 대상과 목표가 없어지고... 그러다가 그 대상과 목표가 없어졌을 때 오는 허탈감 아- 환장하겠더라고."

박정희 타도 즉 유신독재에 항거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최연은 허탈해 했다.

이은정 기자의 뽀뽀(Fun Fun)한 레시피

잡채

잡채는 잔치 상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 중 하나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잡채는 크고 작은 행사의 음식상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한다.

대학교 재학시절에는 한 학기가 끝나면 '종강파티'를 열어 동기들끼리 자취 파티를 자주 벌였다. 항상 같은 과 동기생끼리만 모여 파티를 벌였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좀 더 특별한 파티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당시 학교에는 우리나라 학생 뿐 아니라 외국인 교환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이었다. 기숙사에 생활하던 그 친구는 같이 기숙사 방을 쓰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는 자취를 하는 친구 집을 빌려 외국인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다.

당시 파티에는 각 나라의 대표음식들로 한 상 가득히 차려졌다. 우리나라 대표음식으로는 김밥, 떡볶이, 잡채, 김치

찌개 등이 상에 올라왔다. 각 나라의 음식을 맛보고, 평소 잘 어울리지 못했던 외국인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기회에 모두들 떠들며 있었던 하루였다.

특히 잡채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온 친구들은 우리가 차린 한국 음식 중에서 잡채를 가장 잘 먹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약간 달달하면서도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그들의 입맛에 잘 맞았던 모양이다.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줄곧 '맛있다'고 말하던 그 친구들은 순식간에 잡채를 담은 그릇을 비워 버렸다. 한 일본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잡채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해 한참 진땀을 뺐다. 생각보다 잡채가 그리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그렇게 우리는 '잡채'로 인해 국경을 넘어진 우정을 나누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알고가기 잡채에 주재료로 사용되는 당면은 당질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잘 맞는다. 당면은 열량이 높고, 칼슘과 인을 함유해 포만감을 줘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또한 위에 머무는 시간이 적어도 소화도 빨리 된다. 하지만 당면은 열량이 다소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적게 섭취해야 한다. 당면을 요리할 때에는 찬물에 20분 정도 담가둬다 요리하면 쫄깃한 맛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삶을 때 식용유를 넣어주면 빨리 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재료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당면 100g, 시금치 80g, 표고버섯 30g, 당근 40g, 양파 30g, 식용유, 소금, 간장, 설탕, 참기름
- 음식 만들기**
 ① 시금치는 데친 후, 물기를 짜고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무친다.
 ② 당면은 찬물에 불린 후, 끓는 물에 삶아낸다.
 ③ 양파, 당근, 표고버섯 등은 가늘게 채썰어 놓은 후,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소금을 간한 뒤 볶아낸다.
 ④ 삶아낸 당면에 ①과 ③을 넣고 간장, 참기름, 설탕을 넣고 버무린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부처님 만나기 전 인드라는 잔혹했다

레아가 준 약초를 먹은 크로노스가 구약질을 하자 그의 입에서 그동안 그의 뱃속에서 살아있던 아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숨어서 이것을 지켜보던 제우스는 재빨리 형제들과 힘을 합쳐 아버지에게 맞섰다. 혼자서는 크로노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공의 적'인 아버지를 향해 형제들이 합동작전을 펼친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간의 숙명적인 대결
 한편 제우스처럼 인드라 역시 태어나기 전 이미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샀고, 태어나서는 곧바로 어머니로부터 버림 받았지만 이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다. 암암리에 인드라에게 동조하고 있던 다른 신들이 그를 도와주었다.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인드라는 곧바로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가로채 힘을 키웠다. 그리고 이 힘으로 아버지 드야우스로부터 번개와 벼락을 내리는 무기 바주라를 빼앗았다. 바주라를 잃은 드야우스는 인드라에게 대항

할 수 없었다. 인드라는 힘을 잃은 아버지 드야우스의 발목을 붙잡은 후 땅으로 내던져 죽였다. 프리트비는 아들에 손에 숨을 거둔 남편을 보며 탄식했지만 인드라를 막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부터 자유를 찾은 인드라는 그 후 바주라로 약마 브리트라를 쓰러뜨리고 그가 묶어 놓았던 구름을 풀어 인간 세계에 비를 내려 주었다. 그러자 인간은 매마른 땅에 물을 제공한 인드라를 숭배하기 시작했고 인드라에게 제물과 송배를 바치기 시작했다. 이 제물들을 통해 인드라의 힘은 점점 더 커졌다. 이제 모든 신들은 모두 인드라를 두려워하게 되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항하지 못했다. 이런 무언의 동의 속에서 인드라는 자연스럽게 신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수라와 제석천의 전쟁
 아버지의 무기를 빼앗은 뒤 손수 아버지를 죽임에 이르게 만든 인드라의 모습은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 한 치의 망설임도



인드라
삽화=김영수

없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인드라에게는 한 조각의 자비심도 없다. 넘치는 젊음과 패기, 의기양양한 등이 가득할 뿐이다. 하지만 불법에 흡수된 후 인드라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 바뀐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도리천의 주인 자리를 놓고 전쟁을 벌인 숙적 아수라와의 한 판 승부이다.

헤아릴 수 없는 '갯'의 세월을 살아가는 천인(天人)들과 팔부신장들도 세대가 바뀌면 왕도 바뀐다. 제석천과 아수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은 '비마질다라' 아수라 왕 때였다. 아수라 측은 원래 자신

들이 살던 도리천을 되찾기 위해 제석천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왔던 터였다. 그때마다 인간 세상에도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아수라와 제석천의 전쟁에 대한 해석은 자연재해로 겪는 피해의 원인을 신들의 전쟁 탓으로 돌리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동양인들의 사고 방식이 빛을 발하는 장면 중 하나이다.

하어른 아수라의 군대가 무기를 들고 수미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비마질다라 아수라왕은 천 개의 무기를 손에 들고 가장 앞에 서서 군대를 이끌었다. 제석천 역시 두 마리의 붉은 말이 이끄는 보배 수레를 타고 사천왕을 앞세워 도리천 수호에 나섰다. 수미산 중턱에서 만난 두 군대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 도리천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땅 곳곳에 자리한 아름다운 절집 숲 24곳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산림학자이자 숲 해설가인 전영우 교수와 함께하는 절집 숲 이야기!
절집 숲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생태적 문화유산이자 선조들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 매력적인 선물이다.

경쟁과 속도에 지친 현대인에게 마음의 풍요와 안식을 제공하는 절집 숲.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향유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경관이자 아름다운 자연유산. 220여 컷의 풍광 사진과 인문학적인 깊이가 있는 글은 독자로 하여금 절집 숲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게 할 것이다.

전영우 저 | 사륙배판 변형 | 컬러 | 396쪽 | 값 23,000원

휴가길 필독서!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정심빌딩 3층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books

중생들을 고난으로부터 구제해주시는 33분 관세음보살님의 만남!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33관세음보살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모습으로 중생들에게 나투셨는가? 항상 중생들 곁에 계시면서 중생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33분 관세음보살님의 유래와 영험담!

전통과 현대적 기법이 조화를 이루어 그려 모신 33관세음보살도! 중생들의 어려움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고난으로부터 구제해주는 33분 관세음보살님의 성스럽고 친근한 모습!

방경일 글 · 남종진 그림 | 국판 변형 | 컬러 | 256쪽 | 값 13,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